

건강백서 14

머리 (두통)

두통은 두중증(頭重症)과 겹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데 크게 해부학적으로 두부(頭部)의 손상이나 기능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과 다른 질환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즉 머리 자체의 이상이나 다른 질환의 합병증의 일종으로 온다는 것이다. 타박이나 충격에서 오는 뇌진탕 등은 물론이고 뇌종양, 뇌막염, 뇌동맥경화증, 중풍에서

인한 산소결핍 상태에서도 현 기증과 수반하여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볍게 지나쳐도 될 상태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분류와 치료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도 두통을 기, 혈의 부조화나 담음(痰飲)으로 인한 혈류장애 등에 따라 전체 혹은 좌우로 분별하였고 감기, 소화장애, 심인성 울기(鬱氣) 등 원인을 상당히 소상하게 분류하여 진료하였다.



기·혈 부조화로 인한 혈류장애 상태 시력장애·축농증·치아질환서 올수도

오는 뇌일혈이나 혈전성질환으로 인한 직접 손상상태에서도 격렬한 두통이 올 수 있다. 발생부위에 따라서 전(全)두통, 편(偏)두통, 미간(眉間)두통, 전(前)두통, 후(後)두통 등으로 구별되며 발생시간 또는 정도에 따라 간헐두통 격렬두통 등으로 증상을 이분지어 부를 수 있다. 또한 축농증, 중이염, 치아질환, 감기, 임파선염, 대상포진등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는 질환의 경우에도 심한 두통이나 두중(頭重)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밖에 난시 등의 시력장애, 협각질환, 빈혈,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로

현대과학으로 두통이 일어날 때의 뇌파(腦波)를 Scope로 잡고서 침구치료를 한 결과 그 사이클이 변하는 것을 확인해서 학계에 발표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즉 침구치료를 통해 통증이 해소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진통제를 사용할 때처럼 원인질환이 다 낫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없이 통증을 감감시키며 근본치료를 도모한다면 얼마나 국민 보건에 공헌하는 일인가?

윤을상 <한의학 박사>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 ④ (중)

그러하여 1990년 3월1일 보궁에 다녀온 횡수가 70세가 되는 나이였다. 그날은 기분도 매우 상쾌하고 전신이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다. 그날부터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맨 몸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매일같이 보궁에 다녀와서 삼보당 법당 관음전을 차례로 인사드리고 식당에 가서 공양하고 자리에 와서 쉬게 된다. 이것이 나의 하루 일과였다.

이젠 집에 갈 생각은 없어지고 계속 구인사에 있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할 수 없이 약을 가지러 가야하기 때문에 며칠동안은 집에 다녀오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기도중에 관음주송을 외우면서 언뜻 잠이 들게 되었다. 비구니 스님 세분이 내게로 오더니 내 허리에 약을 바르고 허리밴드를 매어 주는데 한번은 꼭 붙들고 두분은 꼭죽이며 매어 주는 것이었다. 갑자기 통증이 없어져서 좋아하며 깨어보니 입으로는 관음주송을 계속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올까 하고 일어나는데 허리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지만 전혀 통증이 없었다.

이리하여 기쁜 마음에 공중전화로 가서 집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리저리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기뻐하며 그 꿈 속의 비구니 스님들은 필시 관세음보살님들이니 지금 당장 세면장에 가서 세수 깨끗이 하고 관음전에 가서 복진함에 조금이라도 돈을 넣고 "고맙습니다"하고 인사하라고 했다. 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 자리로 와서 보궁에 올라간 횡수를 세어보니 백편이 넘어 섰던 것이었다. 이제는 나의 병을 모두 고친 셈이 된 것이다. 진실로 병고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90년 하안거. 한달간의 수도 기



그림·이준석

“여보 고맙소 당신 덕에 부처님과 조사님을 만나 병고에서 벗어나 거듭나게 되었으니... 죽어서도 모든 분의 은혜 잊지 않으리라”

간이 왔다. 나는 처음으로 안거수도에 접수하였다. 삼중 기도실보다 더 질서있게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삼중에 있을 때보다 삼십분을 더 기도했다. 어느날 안거 도중에 또 다시 꿈이 있었다. 꿈에 눈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눈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눈은 바다같이 커 보였다. 눈에서는 일꾼들 사오십 명이 일을 하고 나는 모를 끌고 두들겨 놓아주고 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 아내가 밤공주리를 이고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걸 보고 깨어보니 꿈이라는 걸 알았다. 그

래서 기도 중에 전화로 아내에게 사연을 이야기하니 아내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하며 "모를 심었으니 나 잡초를 뽑고 매어주고 해야 나중에 쌀이 되어 먹는게 아닙니까."하고 말했다. 그 후로는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동안거 수도를 마치고 나니 이제는 보궁에 다녀온 횡수가 이백편이나 되었다. 안거수도를 할때 가끔씩 꿈에서는 처음에 봤던 다음에는 낮으로 배어주며 소로 실어 들었다. 다음에는 정미소에 실어다 도정을 하

어느날 봄이었다. 학교에 가려는데 아내가 "당신의 학교 교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리라"며 돈을 주었다. 나는 서울학교 근처 화원에 들려 정성껏 꽃을 골라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아내의 정성에 새삼스럽게 마음이 뒹 돌았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리라 생각했다. 또한 구인사에 큰 은혜를 입고 또 감기 위해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여생을 살아가리라 거듭거듭 다짐한다.

목영태 <경기도 안성군 죽산리>

◆ whosoever, having really contracted a debt, runs away when called upon (to pay), saying, "there is no debt(that I owe) you,"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사실은 빚이 있어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for love of a trifle having killed a man going along the road, takes the trifle,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하찮은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The man who for his own sake or for that of others or for the sake of wealth speaks falsely when asked as a witness,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증인으로 불러 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제삼자를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is seen with the wives of relatives or of friends either by force or with their consent,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서로 눈이 맞아 놀아나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 그들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being rich does not support mother or father when old and past their youth,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35

relatives or of friends either by force or with their consent,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서로 눈이 맞아 놀아나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 그들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being rich does not support mother or father when old and past their youth,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contract (v) (빚을)지다
*debt (n) 빚
*run away 발뺌하다, 도망가다
*trifle (n) 하찮은 물건
*take (v) (폭을·물건 등을) 약탈·탈취하다
*sake (n) 이익
*consent (n) 승낙, 동의
*support (v) 부양하다, 섬기다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禪을 찾는 늑대

나는 몇년전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을 추론함으로써 파이드루스를 기억할 수 있다. 어느 금요일, 나는 예상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나는 사람들과 너무 큰 소리로 떠들고 술도 마구

퍼마신 탕으로 뒷방으로 가서 쓰러져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긴 복도가 있는 대형건물의 한 방에서 눈을 떠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모종의 치료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사상관찰처 관소에서 온 통지서에는 한 사람이 정신이상으로 진단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몇해 전 파이드루스가 존재했는 것이라고 알게

된 첫번째 암시였다. 그로부터 여러날, 여러 달,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나는 더욱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죽었다. 그는 법정의 명령에 따라 파괴되었다. 고압전류를 두뇌에 갖다

“나는 사물들을 내눈으로 보지만 또한 그의 눈으로도 본다”

들이듬으로써 그의 자아파괴가 이루어진 것이다. 0.5초, 1.5초의 간격을 두고 대체로 8억암페어의 전류를 두뇌로 흘려보냈던 것이다. 이 완벽한 기술적인 처치로 인해 그의



그림·심민섭

를 보면 나는 다른 세상에서 발신되어 오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영적인 매체와도 같다. 파이드루스는 망각된 타계로부터 나에게 그의 무서운 과거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일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나는 사물들을 내 눈으로 보지만 또한 그의 눈으로도 보는 것이다. 이 눈들이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지 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손, 이 길을 따라 달리는 모터사이클의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손, 이 손이 한때는 그의 손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섬뜩한 공포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달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공포를... 극도로 고립된 파이드루스는 계속되는 표류 끝에 군대에 들어가 한국에서의 군무를 경험하고 인도까지 흘러간다. 어느날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는 인생의 환상적 성격에 관해서 열을 올리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마 50번째였을 것이다. 파이드루스는 손을 들고 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도 환상이었느냐고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써 인도철학과의 대화도 끝이 났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부처님의 유언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니 두 발로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정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1 2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금강경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안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